

훌륭한 장로님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일을 하던 분이시다. 그런데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끔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에 빠진다. 그 당시 나는 그분을 생각하며 열심이 없는 말만 무성한 장로님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도왔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다. 그러면서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그분을 알아 가면 갈수록 말만 무성한 사람도 아니요 열심히 없던 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그분처럼 일하며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있어보니 그분이 하셨던 헌신이 최선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늘 직원들에게 시달리면서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야 사업이 되며 자신이 가 있어야 할 시간에는 영락없이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교육을 위하여 여기저기를 운전하다보니 하루 잠 자는 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한 최선의 사나이 장로님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그것도 모르고 나의 마음 한편에서 그분에게 더 강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도록 간접적으로 고상하게 요구하고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후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아니면 나의 제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에 교회 안에서만 있으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으로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있으라는 요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 여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천국을 예비함이고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던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있어보면 아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장로님과 지금도 대화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 생각이 다르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장로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 가슴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그분과 더욱 가까이 사귀며 기도하고 위하여 기쁨으로 함께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4-5절) 라고 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에 휩쓸린 거짓이 페인트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가?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기며 최선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나누는 것이 교회교육이고 가르침이며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아닌가?